

마. 무질서한 자연성 내장재의 사용.

영세상인들이 각 점포마다 대부 간막이를 합판등으로 막아 놓고 1지구와 4지구를 잇는 다리마저 합판으로 막아, 노점은 단들여 4지구에서 일어난 불이 이를 노점을 타고 1지구로 쉽게 번지게 하였다.

바. 소방시설의 외비, 화재 발생 위험의 제거

소방훈련의 강화와 자연성 내장재의 사용제한은 물론 시장 화재에서는 특히 철거센터도 인한 소재불등, 장애문제를 해결하는 등 종합적 대책이 절실히 한다. (도면 참조 : 별첨 1)

L 빌딩(S볼링장) 화재

엎질러진 솔벤트가 사용중인 전기근로에 인화, 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 안됨. (건물피해액 6천 8백여만원)

1. 일반 사항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동

건물명 : L 빌딩 (S볼링장)

소유주 : H 흥산(주)

2. 건물 개요

대지 $1,595.88\text{m}^2$, 1972년 2월 건립된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6,050.3\text{m}^2$ 규모의 사무실용 건물로 4층을 제외하고는 건물구조가 전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조작조였고 4층은 본 건물을 신축한 후 볼링장으로 쓰기 위해 철골트러스위 스파트지붕으로 증축됨.

총 면적을 보면

층 별	바 닥 면 적(m^2)	용 도
B1	272.51	물탱크실, 연료탱크실
1	1,379.76	전기실, 기관실, 은행, 사무실 제교점, 문방구 등 점포
2	1,431.24	사무실
3	"	사무실, 맥주홀
4	"	볼링장
옥 탑	104.31	기계실, 숙직실, 사무실
계	6,050.3	

주요설비로는 보일터(3T), 변전설비(37.5 KVA), 승강기 1대(6인승, 5층용) 공조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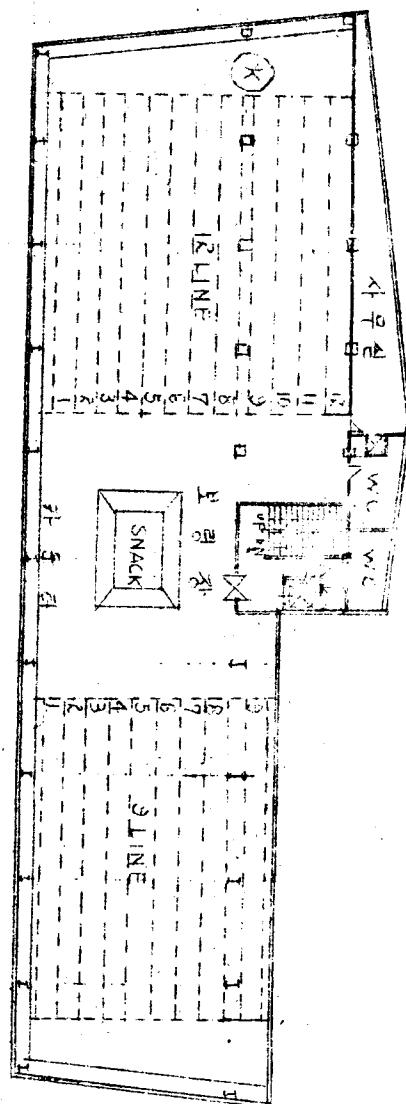
3. 화재 상황

1975. 11. 22. 13시 55분경 4층 볼링장 9번, 8번 레인 핀센터실에서 종업원들이 도시락을 데우기 위하여 전기焜로를 사용 중 종업원 한 사람이 외출하기 위하여 사물함 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다가 5개의 콜라병에 넣어둔 솔벤트병이 넘어지면서 상기 전기焜로에 솔벤트가 인화되어 발화되었음. 화재가 발생하자 전직원이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화하고자 하였으나 사용방법 미숙으로 신속히 사용하지 못하였고, 바닥에는 건조한 Maple 또는 Lauan 목이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벽체와 천정의 마감재들이 가연성이 높은 육송, Tex, 합판류로 되어 있어 발화한 불은 순식간에 볼링장 전체로 퍼져나감으로써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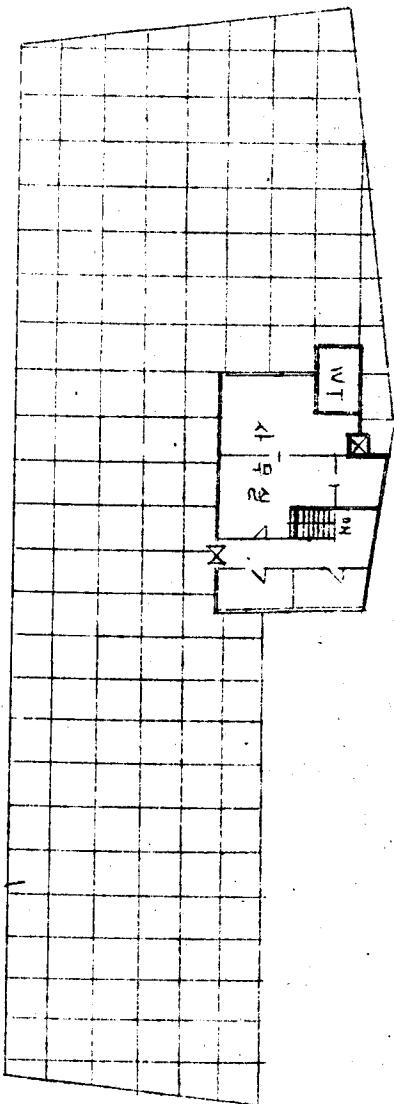
#2

별팅 (S'볼링장) 평면도

S 1/500



4TH PLAN



PENT HOUSE

화재 당시 볼링장내의 종업원 30여명과 손님 20여명은 모두 옥상과 1층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고가사다리차 4대를 포함, 30대의 소방차가 동원되었으나 토요일을 맞아 몰려든 인파와 이웃 신축공사장에서 길 한가운데 쌓아 놓은 모랫더미 때문에 현장 접근이 차단되었다. 소방관들은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호스를 들이댔으나 인화성이 강한 볼링장 기재 등이 화염에 쌔여 진화작업이 어려웠으며 밤화후 1시간 30분만인 14시 3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

4. 피해 상황

4층내부 $1,431.24m^2$, 21개의 레인 및 펀 3,000여개등 각종 볼링기재, 5층 $104.31m^2$ 의 사무실 등을 모두 태웠다. 4층은 붕괴된 상태였으나 4층 미만은 불길이 닿은 흔적이 없었으며 단지 수침에 의한 손상을 입고 있었다.

건물피해액 : 67,606,872 원

보험금액 : 67,300,000 원

보험금 지급액 : 57,583,287 원

5. 문제점 및 대책

가. 인화질 물 취급 소홀

제4류 위험물인 솔벤트는 비록 그 취급량이 적다 하더라도 취급 상의 주의를 요하며 가연성 기자재가 있는 실내에 보관 사용함을 피했어야 할 것임.

나. 소화기 사용법 무지로 초기소화 실패

최초 목격자인 L 씨가 소화기를 사용 불길을 잡으려 했으나 조작 법을 몰라 상당 시간을 머뭇거리다가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상시의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다. 소화설비의 유지 관리 미흡

당 이재건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배관내에
이물질이 막혀 있어 작동되지 않았고, 수동으로 가압펌프를 작동
시켰으나 오히려 배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짐으로써 설비가 파손
되고 붕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소화시설의 규정공사나
유지 관리의 철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라. 소방도로상의 장애물 방지.

소방도로상에 인접 신축건물 공사를 위하여 많은 양의 모래가
쌓여 있어 소방차 진입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소방도로에 대한 인식과 행정지도가 필요
하다. (도면 참조 : 별첨 2)

E 여고 화재

화재 원인 미상(건물피해액 2천여만 원)

1. 일반 사항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건물명 : E 여자고등학교

소유자 : 학교법인 E학원

2. 건물 개요

동 건물을 외벽 적벽돌, 내벽 및 천장 풀대회반죽바탕, 지붕 목조상
스테트, 바닥 후로링구조의 연면적 $2,346.3 \text{ m}^2$ 규모의 3층 건물로서 1923
년도에 건축된 후 수차례 대수선을 한 바가 있다.